

한여름에 화두참구 어때요?

동국대 국제선센터, 6·8월 간화선 집중수행...불교영어강좌도 개설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부산 법어사 주지)이 여름 간화선 집중수행을 지도한다. 간화선 집중수행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는 6월 27일~7월 3일, 2차는 8월 9~15일에 시작한다.



지난 1월 열린 간화선 집중수행에서 수불 스님에게 간화선 수행 점검을 받는 수행자들.

참가자들은 수불 스님의 화두법문으로 입제를 시작해 6박 7일간 개별적으로 참선 정진에 들어가며, 수불 스님이 직접 화두점검을 하게 된다.

참가비는 25만원으로 수행기간 중 기숙사도 이용 가능하다(비용별도).

한편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불교기초교리를 영어로 배울 수 있는 '불교영어강좌'를 개설했다.

'붓다의 음성-영어가 즐거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업은 6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불립 스님(진관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담당, 교리강의)이 강사로 틈나한 스님의

저서인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교재로 수업한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이해하기 쉬운 영어교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명쾌하게 익히며 동양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영어의 읽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힐링 태극권으로 젊음을 되찾다

한마음선원, 8월 23일까지 '여름학기 문화강좌'

한마음선원 문화재단은 8월 23일까지 안양불교문화회관에서 '여름학기 문화강좌' 및 방과후 강좌를 연다.

문화강좌는 다도, 손뜨개, 사찰요리, 태극권, 한글교실, 선법가교실, 스케치, 생활요가, 시·수필, 꽃꽂이, 일본어회화 입문, 풍물교실(초·중급), 영어회화, 등이 마련됐다. 방과후 강좌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미술, 발레 등을 진행한다.

특히 강좌 중에서 매주 화·목요일 열리는 태극권 수련 프로그램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5월 불강좌를 연 '태극권 수련 프로그램'에는 30대 후반부터 60대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대학에서 태극권을 전공한 전문강사로부터 태극권 동작을 배웠다.

태극권은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노인들도 무리가 없이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이 수강생들의 반응이다. 가사노동으로 피로감이 쌓인 젊은 주부는 태극권을 시작하고서부터 피로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정도다.

불학기부터 태극권 수련을 한 김종길 회원은 "평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및 격무로 견뎌왔던(어깨통증)을 앓았으며,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다리가 불편했는데 3개월간 태극권을 수련한 결과 어깨와 허리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며 "태극권 수련자체가 몸을 관찰하고 호흡을 중요시하는 동작이 많아 마음공부에도 연결이 돼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에도 도움된다"고 말했다. (031)471-3669

이나은 기자

동련·어청위, 제55차 전국어린이지도

6월 8~9일, 속리산 유스타운서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와 사단법인 동련은 '제55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6월 8~9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실시한다.

'햇살처럼 빛나는 행복한 여름불교학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서 필요한 찬불가 및 율동을 비롯해 어린이·청소년법회 현장에서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익한 강의가 마련된다.

6월 8일 첫째 날에는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찬불가 율동 △미래 불교 등불을 밝히는 어린이포교 △테마가 있는 여름불교학교 사례소개 및 프로그램 체험을 주제로 강의가 열리며, 9일에는 △인도 어린이 수행문화 따라하기 △연극 놀이 등이 진행된다. (051)864-4569

이나은 기자

템플스테이·문학·음악 만나니 "힐링되네"

대불청·불교문화사업단, 청년위한 '통통콘서트' 열어

'콘서트' 하면 일반적으로 거대한 공연장과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그 음악에 열광하는 많은 관객을 떠올린다. 사람들은 일상을 벗어나 공연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삶의 여러 문제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런 가운데 한국 불교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문학과 음악이 만나 열리는 이색 공연이 시민과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가 주관하고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주최하는 '뜨뜻따따 통통콘서트'가 주관을 맡고 있다.

대불청이 청년불자 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획한 '통통콘서트'는 20대 청년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80명 관객을 수용하는 미니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불청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주는 템플스테이와 문학과 음악이 만났다. '이곳이 콘서트 장이라고?'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조용한 템플스테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학과 잔잔한 음악이 만났다"고 설명했다.

4월 25일에 열린 첫 번째 콘서트에서는 '무소유' 법정 스님의 산문시가 무대에 올랐다. '무소유'를 노래로 옮긴 '무소유의 노래'를 비롯해 '홀로 사는 즐거움', '아름다운 마무리' 등 법정 스님의 글 등이 감미로운 기타선율과 함께 선보였다.

5월 30일 두 번째로 열린 통통콘서트에



대불청이 청년불자 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획한 '통통콘서트'는 20대 청년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80명 관객을 수용하는 미니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년불자 육성하기 위해 기획 '이등병의 편지' 김현성 참여

30·40대 비불자들도 즐겨

6월 27일 '윤동주 시' 테마 공연

는 80여 관객이 전석을 채웠다. 이날은 널리 알려진 시인들의 시와 교보 문고 발간에 상설 전시돼 있는 '광화문 글판'에 관한 시에 김현성씨가 가락을 넣은 곡들이 선보였다. 또 이광석, 달로와, 정은주, 신희중 등이 출연하며, 김보경 북칼럼니스트가 특별손님으로 출연했다. 관객들은 '광화문 글판'의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김보경 칼럼니스트의 시낭송과 책 이야기도 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대불청은 "도시에 심상한 바람을 불어주는 광화문 글판의 글은 지나는 사람들의 짧은 시선만으로도 긴 여운을 준다"며 "시와 노래는 한 번만 들어도 누구나 기억할

만큼 인상적이다. 마치 CM송처럼 금방 따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대를 위한 공연이라고 하지만 30~40대 다양한 연령층들도 참석해 공연을 즐겼다.

신모(48·여)씨는 "혜민 스님 강연 등을 접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콘서트가 있는 것을 보고 오게 됐다"며 "시에 멜로디를 넣어 들으니 내용이 더 깊게 와 닿았던 것 같다. 이런 공연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철학·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황진우(25·남)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공연이 열리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됐다. 시 내용에 대해 잘 몰랐는데 노래와 같이 부르니 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이런 공연은 불교색채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다.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연을 기획한 김현성씨는 가수 겸 작곡가이면서 시인이다. 그는 매년 봉축위에서 발매하는 음반 '연등회의 노래' 7장을 기획하고 작사·작곡도 한다.

김현성 씨는 "불교를 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문화장치가 필요하다.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불교문화도 알리고 어떤 청년들이라도 찾아와 즐기고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편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영대 대불청 연수원장은 "만해 스님, 법정 스님, 고은 시인의 문학작품처럼 불교적이지만 대중적이면서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 스며들게 할 것"이라며 "작고 소박한 공연이지만 관객과 진행자들이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공연을 열어 갈 계획이다. 6월 27일에는 '청년시인 윤동주를 만나다'를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매월 무료 한방진료... '벌써 일년'

한불련·조계사 의료전법팀, 조계사 대웅전서 기념법회 봉행

한이사불자연합회(회장 정지천) 한의사들과 '조계사 의료전법팀'이 무료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한이사불자연합회는 5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방진료 1주년 기념법회 '부처님 손은 약손'을 봉행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대웅전에 모신 삼존불은 석가모니불을 중앙으로 아미타불,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약사여래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의사 불자회 정지천 회장, 이수만 명예회장 등 의료 봉사에 힘쓰

는 한의사들을 한 명씩 소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법문에 이어 이수만 명예회장은 '사상의학에 의한 마음치료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의료전법팀 황용자 부장은 "병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내 몸을 치유하듯 봉사하겠다"며 약사여래불을 명호 하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조계사 안심당에서는 한의사 불자연합회원과 조계사 의료전법팀 봉사자를 볼 수 있다. 이들은 몸이 불편한 불자들이나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돌보기 위해 한방 진료봉사를 하고 있다.



한이사불자연합회 한의사들과 조계사 의료전법팀 자원봉사자들. 사진제공=조계사

한의사 불자연합회원들은 12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있으며, 의료전법팀원들은 안내 및 접수, 환약배분, 진료카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뿐만 아니라 한이사불자연합회는 침·한방파스 등을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6월 26일까지

◆개강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기장군 불교연합회

- 회 장 정 오 (장안사 주지)
- 수석부회장 법 안 (안적사 주지)
- 부 회 장 보 혜 (청량사 주지)
- 감 사 혜 성 (해광사 주지)
- 총무국장 도 은 (장안사 총무)
- 재무국장 혜 명 (혜명사 주지)
- 포교국장 성 타 (동림사 주지)
- 복지국장 법 귀 (백련암 주지)
- 홍보국장 정 산 (덕주사 주지)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 회 장 이재순 (장안사)
- 수석부회장 조창국 (옥정사)
- 부 회 장 박에란 한정희
- 김경옥 이해수
- 최선에 강다영
- 김춘애 성환필
- 이영화 심승희
- 이수복
- 감 사 송재일
- 사무총장 최임진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1
TEL 051)727-2392 / FAX 727-2394 사무총장 010-3704-1681